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호

[이종세의 스포츠코너]

갑진년 올림픽의 해...한국, 명예회복할까?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총괄부회장, 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주말체육학교', '방학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체력평가 초5 이상→초3 이상으로 확대...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고유선 연합뉴스기자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장애학생들의 체육시간' 기본계획 첫반영"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의 의미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 스포츠윤리센터 유명무실

[단독]성폭력·입시비리·횡령...대한체육회가 묵살한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김현지, 조해수 시사저널기자

해묵은 갈등 놓고 문체부-대한체육회 정면 충돌 양상

'악화일로' 문체부 VS 대한체육회, 갑진년에는 맞물려 굴러갈까

김태훈 데일리안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새해에는 모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체육시민연대 드림

갑진년 올림픽의 해...한국, 명예회복할까?

며칠 뒤 열리는 2024 갑진년 새해는 올림픽의 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33회 하계올림픽은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린다.

프랑스어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4 파리하계올림픽은 육상, 수영, 체조 등 32개 종목에 걸린 329개 금메달을 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00여 회원국이 참가, 17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종합 순위 16위로 추락한 대한민국이 과연 파리올림픽에서 명예를 회복할까.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4년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매우 염려스럽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금메달 5, 6개도 어려울 수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우 염려스럽다”며 “지금 예상하는 것으로는 금메달 5, 6개 정도다. 펜싱하고 양궁을 빼면 실질적으로 (금메달 획득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리우올림픽)이전까지 종합 순위 10위권을 유지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종합 15위에서 20위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전권을 따지 못한 종목이 많아서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올림픽에 가면 보통 우리 선수단 규모가 250명에서 300명 사이였는데 자칫하다가는 200명도 안 될 수 있다. 메달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대회에 나가는 선수 입장에서는 메달을 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배드민턴의 안세영이나 수영의 황선우 등도 있지만 그 외 종목에서는 금메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객관적인 실력으로만 봐서는 메달권만 들어가도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양궁 펜싱 여자핸드볼 등을 뺀 구기 및 투기 종목이 부진해 올림픽 출전권 획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복싱, 레슬링, 유도, 배구 등은 과거 효자 종목으로 꼽혔으나 최근에는 지역 예선에서 탈락, 메달 획득은 고사하고 본선 진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경쟁력도 끌어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준비하고 있지만 절대 녹록지 않다”며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체육, 아시안게임에서도 계속 밀려

한국은 1984년 LA 올림픽부터 2000년 시드니 올림픽(12위)만 빼고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이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뒤 한국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은 급전직하,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종합 16위(금 6, 은 4, 동 10)에 그쳤다.

한국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종합 2위인 일본(금 52, 은 67, 동 69)에 이어 종합 3위(금 42, 은 59, 동 89)에 머물렀다. 한국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9개에 그쳐 75개의 일본에 종합 2위 자리를 내주었다.

아시안게임 역시 2016년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맡은 이후 일본에 종합 2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한국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5개로 일본(52개)을 제치고 종합 2위에 올라선 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 한국 79, 일본 47)까지 16년간 일본에 앞서 우위를 지켰었다.

대표선수에게 전근대적인 훈련 방식 혹평

한편 국가대표 선수단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 400여 명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 캠프를 진행했다.

명분은 한국 선수단의 정신력을 강화, 도쿄 올림픽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캠프에는 이기흥 회장 및 체육회 직원들도 함께했으며 선수들의 부상 등을 고려해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은 신체 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체육계에서도 “영하 10도 안팎의 엄동설한에 정신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표선수들을 혹한 속으로 내몬 것은 50~60년 전의 전근대적인 훈련 방식과 뭐가 다른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대한체육회 수뇌부의 기획력에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인촌 장관 등 문체부 관계자들도 대표선수들의 해병대 극기 훈련에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후문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하계올림픽의 종합 순위를 15위권 밖으로 하향 조정해 놓고 대회가 끝난 뒤 ‘목표 달성’했다고 홍보자료를 내놓는 대한체육회의 ‘마인드’가 한심스럽다.

지난 40년간 동, 하계올림픽을 막론하고 종합 순위 ‘톱10’에 들었던 한국체육이 어쩌다 15위권 밖으로 밀리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점이다.

이종세(대한언론인회 총괄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체력평가 초5 이상→초3 이상으로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늘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체력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법정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운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건강관리와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가 일반 국민 대상인 문체부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을 일원화하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통계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팝스 대상 학년도 현행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팝스 4·5등급자가 참여하던 건강체력교실은 비만 학생이나 희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경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선수 인권도 보호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체육 상담팀을 꾸리고, 생존수영 교육을 강화한다.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이 논의됐다.

더불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발·운영·창작·이용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가 지켜야 할 행동양식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도 논의됐다.

"장애학생들의 체육시간' 기본계획 첫반영"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의 의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규 체육수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체육 활동 내용을 처음 반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6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기본계획에 첫 장애인 학생체육, 통합체육을 반영하게 된 의의를 전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의 72.8%가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상황. 장애학생들의 체육시간 소외 문제는 국가 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23년에도 장애학생들은 체육시간에 '깎두기'이고, 운동회 날이면 '만년 응원 담당'이다. 출산율 0.68명 시대, 학급당 20명 안팎의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체육교육,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몸으로 부대끼며 다름을 배우고 협력과 배려를 익히는 통합체육은 미래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스포츠조선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비장애학생 모두의 '서울림운동회'를 매년 여는 이유다.

'모두의 스포츠'를 국정과제 삼은 정부가 처음으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체육'을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한 건 의미 있다. 문체부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특수교육정책과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 확대, 교사 연수 확대'로 첫 방향을 잡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023년 96개소, 교사 205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체육교실은 올해 100개소,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00개소 9억3000만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초·중등 체육수업을 위해 지도교사 대상의 통합체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통합체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수업 교구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2차 기본계획에서 학교내 장애학생 체육활동은 단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장애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주로 학교 밖 시설에서 진행됐다. 3차 계획부터는 처음으로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넣기로 했다. 기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해오던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통합체육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변화,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와 협업해서 내용을 더욱 채워나갈 것이다.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장애학생 체육을 문체부와 교육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학생들의 학교내 체육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본계획'에는 학교 정규 체육수업을 확대하고, 학생건강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관리하는 등 '풀뿌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전생애 국민 체력 관리 및 학생 체력 증진, 학교 단위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확대,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와 함께 '학생선수'들을 위한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 4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전생애 국민체력 관리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팝스, PAPS)를 문체부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 팝스 측정 대상도 2026년에는 현행 초등학교 5학년에서 내려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운영한다. 또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수영장 등 200개의 학교복합시설을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함께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확대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시즌2 다시 뛰는 아침',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등 우수사례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 학생선수들의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스쿨(e-school)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멘토링) 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업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에 따라 중앙(문체부-교육부)과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현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단독]성폭력 입시비리 횡령... 대한체육회가 묵살한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다이빙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발탁됐던 조우영 인천시청 감독의 미성년자 선수 성폭행-상습적 돈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023년 12월1일자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기사 참조). 대한수영연맹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조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절차는 여전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진상 규명이 이뤄져도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징계결정권은 대한체육회와 산하 시·도체육회가 갖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10건 중 4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2월11일자 <[단독]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안 40%도 이행 안 했다> 기사 참조).

이 가운데에는 성폭력 사건도 있다.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3년 1월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언어폭력·폭력 사건과 관련해 A 선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022년 2월22일에는 B 선수와 C 지도자가 D 선수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최초 신고 이후 1년 이상 사건을 조사해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아직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도자의 폭행과 폭언,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사건도 9건이나 묵살됐다. 돈 상납, 입시비리, 선발전 불공정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특기생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계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모두 28건의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묵살했다. 징계 결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입시비리 의혹 '수사의뢰'까지...그래도 응답 없는 대한체육회

현재의 징계 시스템은 스포츠계의 ‘자정’에만 기대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대한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산하 시·도체육회로 넘긴다. 결국 피의자의 소속팀(1차 징계기관)이 징계를 결정한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소속팀의 상급기관인 시·도체육회(2차 징계기관)가 사건을 다시 살펴본다. 징계기관의 인적 구성상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다.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미이행 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율적 집단에서 '인사권'이 있는 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문체부가 직접 징계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징계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이 없다”면서 “답변 시한을 명문화하거나 징계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선 예산 삭감과 같은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침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용기를 낸 신고자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조우영 감독 사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허정훈 중앙대학교 스포츠정보테크놀로지연구소장은 “현재의 징계 결정 시스템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지거나 보여주기식 징계가 나올 우려가 크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전문성 보완, 기능 확대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스포츠계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 징계 기준의 명확성 및 세분화, 신고 의무제 정착, 일벌백계 시스템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악화일로’ 문체부 VS 대한체육회, 갑진년에는 맞물려 굴러갈까

새로운 해가 뜬 지금, 새로운 희망도 떠오를 수 있을까.

‘2024 파리올림픽’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둔 갑진년(甲辰年)의 첫 날이 밝았다.

체육계의 관심은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파열음을 줄이고 어우러질 수 있느냐다.

해묵은 갈등을 놓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최근 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상급 기관이지만, 이기흥 현 회장은 이전 여러 정부에 걸쳐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대한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무 부처 문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자 정부는 이전에도 KOC를 체육회에서 분리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지위,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 등 2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로서는 KOC가 분리되면 핵심을 잃는 것이라 이전부터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82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등 체육인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체육계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유 장관을 성토했다. 대한체육회와 KOC가 분리되면 선수 선발과 육성, 올림픽 파견 등 여러 사안에서 양 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어 종목 단체와 지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반박의 골자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의거,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문체부와 정면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대회 인사, 스위스 로잔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사안으로 갈등을 빚었다. 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내 체육국을 없애고 15개 부처의 체육 업무를 통합한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을 주장했고, 문체부는 체육회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주장에 대해 “정부 내에서의 신중한 논의와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날도 이기흥 회장은 불참했다. 오히려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체부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다음 장 계속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성명서 발표에 대해 "민간위원 검토 과정에서 여러 경로로 전문가 추천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 못했다.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이다.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대응했다.

두 기관의 잦은 충돌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계층의 이목까지 끌어당긴 결정타는 '원팀 코리아' 해병대 캠프.

지난해 10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해단식에서 해병대 캠프 얘기를 꺼냈다. 당시 이 회장은 아시안게임 결과에 내용에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단이 해병대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계 일각에서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도전, 단결, 협동을 교육하고 두려움 극복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공감을 얻지 못한 부정적 여론 속에 진행된 국가대표 선수 해병대 캠프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구시대적인 발상', '선수단 부상 우려'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각 종목 선수단이 파리올림픽 국가대표로 확정된 것도 아닌 시점이라 이 회장과 대한체육회 결정은 더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기에 유인촌 장관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적인 종목별 훈련으로 기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계 올림픽에 대비하려면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할 맞춤형 훈련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선수들 부상 우려도 있다. 정신력 강화는 (진천)선수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간섭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지켜봤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인촌 장관까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카롭게 비판, 해병대 훈련을 주도한 이 회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모양새가 됐다. 그렇게 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계속됐던 갈등 관계만 더 도드라지게 됐다.

2024년은 총선(4월10일)을 앞두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치러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기흥 회장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 내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 스포츠이벤트인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모두가 힘을 합해 선수들이 쌓아왔던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만 행정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시점이다.

두 축이 서로의 가치와 입장을 존중하며 한국 체육을 싣고 함께 맞물려 굴러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간 스포츠 소식

마사회 유도단,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운영팀' 우수상 수상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312292324003&sec_id=561501&pt=nv

국민체육진흥공단, 군장병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유공 감사패 수상

<https://sports.chosun.com/sports-news/2023-12-28/202312280100168620024297?t=n1>

체육시설 외부인 요금 인상...남양주 관외 이용객들 운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227580246>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공정" 지적...인천 미추홀구 대안 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9094500065?input=1195m>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20대 체육교사 구속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7_0002572274&cID=10201&pID=10200

완주군, 체육계 손잡고 스포츠마케팅 속도낸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9_0002575543&cID=10808&pID=10800

체육회·경기단체 노조,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반대 입장 표명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9_0002575515&cID=10501&pID=10500

[신년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벽 허무는 어울림 체육 활성화"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01010000078>

초 1·2 '체육' 교과 분리 검토...초 3·4로 체력평가 확대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226140300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